

2018년 7월 29일,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 이현정 조사.

이옥선(여, 1938년생, 제주시 도두1동)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애월읍 상귀리(소앵이)와 하귀리(예동산) 사람들은 황다리궤당이란 본향을 모신다. 황다리궤당에는 할망신과 하르방신이 좌정하여 있는데, 당시 매우 세기 때문에 딸을 낳게 되면 당과의 인연을 끊기 위하여 당에 축원하지 않는다. 매해 정월 초이례에 황다리궤당에 제를 지내는데, 어느 날 제를 지내던 양사만이 란 심방이 제관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벌을 주려 한다는 공수를 내렸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돌이 굴러와 제관을 서던 한 남자가 죽고 말았다. 이 남자는 제관으로 나서면서 몸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자] 할머니, 도두에서는 당 안 다년마씨?

[제보자] 당 뎅인다 여기, 우린 안 뎅겨.

[조사자] 여기 신은 어떤 신이렌 헤마씨?

[제보자] 여기 신은 모르켜, 저기 여기는 당답질 안허여. 근디 저 소왕이, 상귀하고 소왕이허고 예동산하고 뎅이던 당은 저 소왕 잇인디. 예동산서 ㅎ꼼 내려오민 가믄 어마장장 헤여.

[조사자] 거긴 어떤 신 모사마씀?

[제보자] 거긴 어떤 여주 할망이 본향신인디. 하르방은 고기 먹곡 허니까 부정혜연 담 밖이 모성 잇어. 게난 할망부띠 강 모셔 놋그네에 궤 모상 빌어낳. 하르방신디 궤 모사놔. 경허고 너무 췌어 부니까 뜰은 나민 거기 안 빌어. 뜰은 안 올려. 왜 안 올리냐믄 뜰을 잡아뎅경 경 꼭 받아먹전 잡아뎅긴덴. 거기 다녀야 웬덴. 게부난 뜰은 나믄 안 올려. 우리도 나서도 거기 우리 올련 빌지 안혜연. 우리 뎅겨 뱃주만은.

강 보민이 당이엔 현디 제주도 안에서 그 당시 제일 으리으리헐 거여. 강 보민 쪽 펭풍친 거?찌 막 돌려지고이 돔박낭덜토 이 우로 잇고이.

엄청 옛날에는 정월 보름, 저 초일궤 날은 거기 제드리멍 굿헤여 심방덜이, 막 굿허민 동네에서 몬딱 밥 허멍이. 그때 옛날은 어려울 때난, 메 해영 강으네 올령 빌엇주. 이제 축원해 주민 그레 밥 걸여 놔두곡 또 딴 사름 거 올령 허곡. 하루종일 헤여 굿을. 경허는디 거기는 하여튼 정성이 안 들엉은 안 뛰는디. 훈번 우리 어릴, 혼 열 멧 살은 텔 거라. 굿허는디 초감제를 허니까.

아이고, 동쪽 무슨 기와집 무슨 헌 데서 이제 부정햇젠. 여기 제관덜이 부정햇Zen 이제 벌을 주肯 햅Zen 헨게. 아닌 게 아이라 거기서 돌 굴러 왕 탁허게 뭇안. 이 알에 잇당 그 제관 혼 사름 뭇양 거기서 즉사해연, 굿허는 중에. 그 심방이 초감제헌 때 말헤연. 경헤연 그 사름이 왜 그랬냐 허니까. 그날 저녁이 딴 여주 허고 좀 자서 왓데 그날 제관이. 듯날 아침이 왕 제관 텔 사름이 막 부정햇Zen.

심방이 시커멍헨 굿허더렌 허난. 게난 봄낫어, 우리가. 겐 그 사름 죽었어. 옛날에는 저 항파두리 사는 심방이라 양 뭣이라 낫인가, 양수만이. 막 잘난 사름이라 심방이라도.

[조사자] 정확히 어느 당인지 알아지구과. 말허는 게.

[제보자] 황다리궤. 우리 저 황다리궤 예동산더레 가당 중간이라. 중간인디. 그기 전설이 많은 디주. 그기도.

- 핵심어: 황다리궤당, 소왕이(소앵이), 예동산, 본향신, 고기, 부정, 제관, 돌, 즉사, 할망(할머니), 하르방(할아버지), 심방(무당)